

광주 미술, 세계 예술의 도시 파리에 서다

5월 30일~6월 4일 '무등미술대전 파리로의 초대전'
기경숙·노의웅·박영진·이승희 등 30여명 작품 전시
고흐·밀레·피카소·모네 등 '발자취 따라가는 여행'도

광주의 미술 세계무대를 향해 나아가다. 올해 39회째를 맞는 무등미술대전이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첫 초대전을 갖게 되게 되었다.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번 파리의 전시는 문화적 감성을 일깨우고 창작의 에너지를 새롭게 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프랑스 현지인들에게 여향 광주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예술을 매개로 문화적 소통, 세계적 관점에서 국내 미술계의 위치 등을 다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오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파리에서 초대전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무등미술대전 파리로의 초대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 장소는 갤러리 리 제네디 디라 바스티. 전시 장소는 세계적인 파리 오페라 하우스 인근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85년 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무등미술대전은 그동안 전국 최고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미술문화 발전은 물론 미술인의 역량 강화에 매진해왔다. 또한 신진 작가 발굴 외에도 중견과 원로작가 지원, 국내외 미술문화단체와 교류를 진행해왔다.

지역 예술계에서는 이번 파리 초대전을 계기로 광주 미술 나아가 한국 미술의 해외 확산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참여 작가는 모두 30여 명. 기경숙, 김명숙, 김미숙, 김인숙, 김일해 김은자, 나금화, 노금행, 노의웅, 류미숙, 문연봉, 박영진, 박찬경, 박태후, 박효아, 배정강, 신경옥, 양정숙, 양화숙, 양희영, 오석심, 윤석수, 이명옥, 이승희, 이영주, 장연희,

조일주, 최은영, 황현화이다. 출품작은 서양화를 비롯해 한국화, 문인화, 평면 공예 등 회화 작품 약 30 여 점의 전시된다. 이번 전시총괄을 맡은 류청 광주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미술대전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출품 수도 많았고 여러모로 성과가 좋았다"며 "수상자와 참여 작가 등이 함께 파리를 방문해 전시를 여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참여 작가들은 전시 외에도 고흐, 밀레, 피카소, 모네 등 세계적인 화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여정은 필연적으로 문화의 자장을 넓혀준다는 면에서 창작활동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들은 인상파화가들의 모임장소인 옹플르르를 비롯해 모네 등 화가와 작가 모파상이 사랑한 아트르다, 밀레 등 바르비종파 화가들이 구심점을 삼고 활동한 바르비종, 빈센트 반 고흐가 생을 마감한 오베르쉬르우아즈와 무덤을 둘러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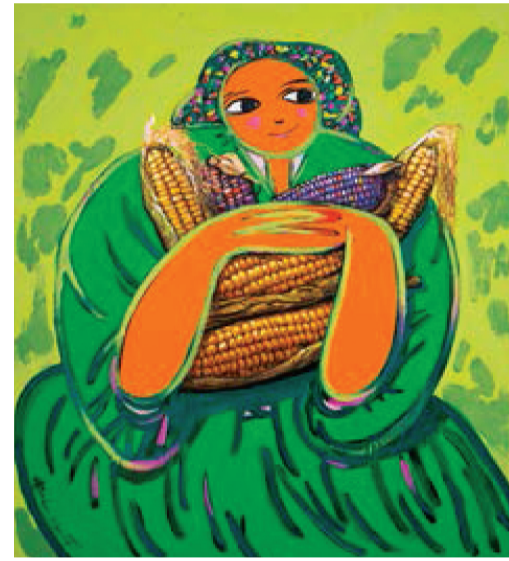
또한 모네가 28점을 연작한 루앙대성당 파사드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곳은 빛과 시간, 날씨 변화에 따라 성당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미술관, 박물관도 직접 둘러보고 문화적 감성을 충전한다는 복안이다. 피카소미술관 외에도 근현대미술관인 퐁피두센터, 인상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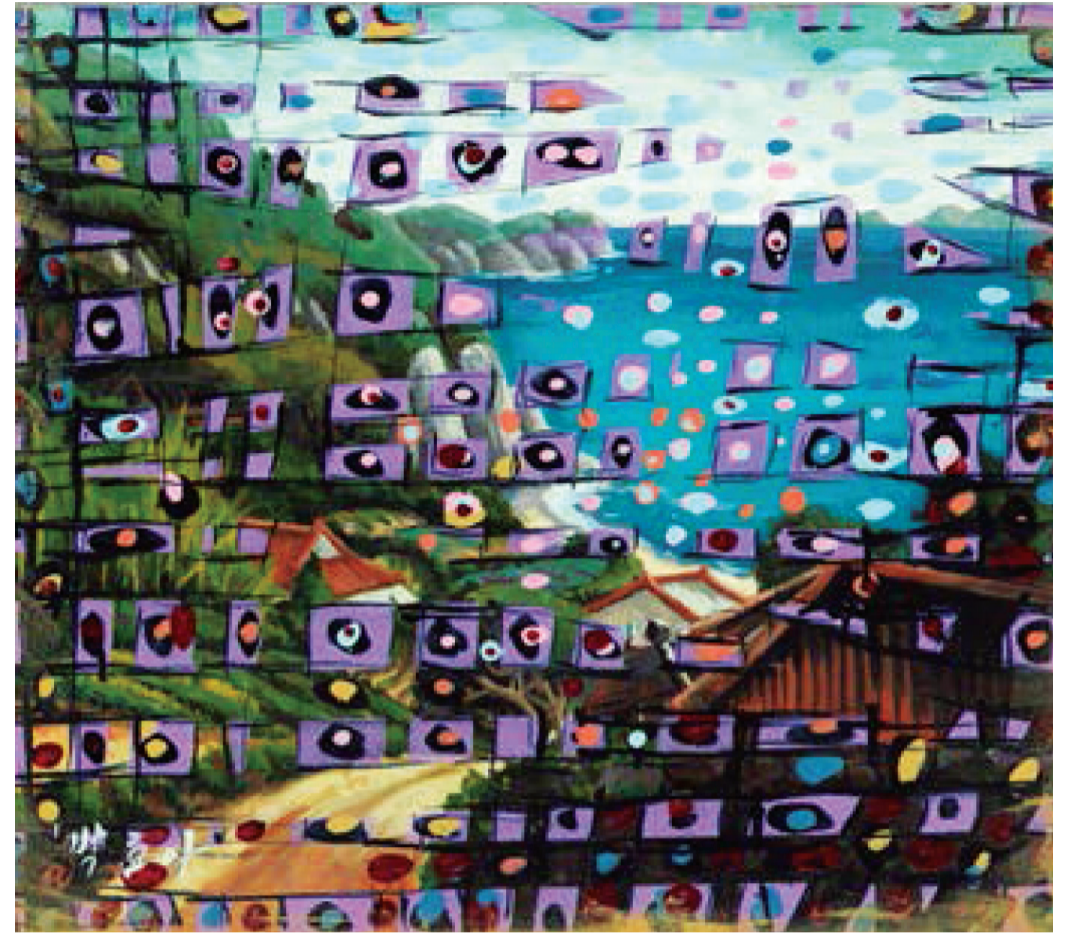
미술의 보고 오르세미술관, 세계적인 박물관 르브르 박물관도 방문한 계획이다.

한편 윤익 미술문화기획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세계와 조형 언어를 정립한 참여작가들은 한국미술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다른 문화권에 펼쳐보이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언어와 몸짓이 다르지만 만국공통언어인 예술을 통하여 참여작가들의 작품이 프랑스 현지인들에게 이해되는 문화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의웅 작 '처녀'



박효아 작 '갯마을'

ACC, '소장 자료·음악' 시민과 공유

27일 토요 아카이브 강연...31일 수요 음악감상회

1976년 창간된 잡지 '뿌리깊은 나무'는 월간 종합잡지 중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를 했다.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의 식을 북돋우는 내용과 사진 등을 수록했다.



보고서·보고서

'뿌리깊은 나무'와 1988년 첫 발간된 '보고서' 등을 볼 수 있고, 동아시아 지역 음악 활동 이야기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소장 자료(아카이브)와 음악을 시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국 잡지 디자인 실험을 다룬 '토요 아카이브 강연'과 동아시아 지역 음악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련 음악을 듣는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흥대 앞에서 아마추어 증폭기로 활동한 한반은 두리반 강제철거 반대농성에 연대한 이후 '민중 엔터테이너 아마기타 트위스터'로 활동해오고 있다.

참가비 무료이며 ACC누리집(www.acc.go.kr)에서 신청 가능. 이강현 전당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ACC특별열람실은 열외 외에도 디비디와 같은 시청각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며 "열람서비스 제공은 물론 아카이브 연구모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31일엔 음악가 한반이 '동아시아 자립음악'



ACC 특별 열람실.

(ACC 제공)

3C(캠프Camp, 클럽Club, 콜렉티브Collective)'를 주제로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음악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련 음악을 듣는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흥대 앞에서 아마추어 증폭기로 활동한 한반은 두리반 강제철거 반대농성에 연대한 이후 '민중 엔터테이너 아마기타 트위스터'로 활동해오고 있다.

참가비 무료이며 ACC누리집(www.acc.go.kr)에서 신청 가능.

이강현 전당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ACC특별열람실은 열외 외에도 디비디와 같은 시청각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며 "열람서비스 제공은 물론 아카이브 연구모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재개관 기념 무대...명품 클래식 선사

광주시향, 6월16일 정기연주회...송지원 등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문화예술회관 재개관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시민합인' 혜택이 제공되며, 새 단장을 마친 문예회관의 연주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광주시향은 오는 6월 16일(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373회 정기연주회 'Beyond' (지휘 홍석원)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에서 광주시향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와 생상스의 '교향곡 3번 C단조 오르간'을 연주한다.

1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의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연주한다. 브람스 전성기에 내놓은 걸작이자 전 생애에 걸쳐 작곡한 단 하나뿐인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브람스의 풍부하고 깊은 음악성을 담고 있어 당대에는 물론 지금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은 2017 율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와 함께 박성용영 재특별상을 수상했다. 티보 바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위 수상, 칼 닐슨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예후디 메뉴인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관현악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부에서는 생상스 교향곡 3번 C단조 '오르간'이 연주된다.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한 생상스가 오케스트라와 오르간의 협주를 교향곡 형식으로 녹여낸 작품으로 장엄하고 웅장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광주시향과 함께 연주하는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은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등 다수의 국제 오르간 콩쿠르에서 수상 및 입상했다. 유럽을 비롯해 북미와 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각지에서 초청받아 연주를 펼치고 있으며 연세대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매는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가능.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8세부터 입장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휘 홍석원



바이올린 송지원



오르간 신동일

한국 전통 '강강술래' '판소리' 일본 무대에

국립남도국악원, 6월 3일

'남도의 예술' 오사카서 공연

진도 대표 문화인 씨김굿을 비롯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강술래'와 '판소리'가 일본 현지에서 공연돼 눈길을 끈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본고장인 남도를 대표하는 예술의 정수를 알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6월 3일 '한국의 문화유산, 남도의 삶과 예술'을 콜레겐파크오사카 WW홀(일본 오사카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일본에 국악의 매력을 알려 K-한류의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주요 사자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강술래'와 '판소리'를 시작으로 진도를 대표하는 '진도씨김굿(중 남도삼현, 지전춤, 길타



국립남도국악원의 '씨김굿 중 지전춤' 공연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음)'과 '진도복춤', '진도아리랑' 등이며 한국 전통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국립남도국악원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남도와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일본 국민들에게 선사하

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함께하는 인문학... 오늘 임채광 교수 '몰리에르' 강연

오늘의 프랑스어를 소위 '몰리에르의 언어'라고 할 정도로 몰리에르는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영미문학과 셰익스피어는 잘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 작가 몰리에르는 상대적으로 생소하다. 그러나 몰리에르는 배우이자 시인이자 극작가로 활동했으며 17세기 희극의 장류를 개척하고 완성했다.

몰리에르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전남대 인문대학(학장 이성원)이 진행하는 세 번째 '함께하는 인문학'에서다. 이번 강연은 임채광 교수(불어불문학과·사진)가 '몰리에르 희극의 언어적 확장-중세 소극에서 근대 오페라로'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25일(오후 6시)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홀.

지난 40여 년간 프랑스 문학 특히 희극을 전공하고 교육해온 임채광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프랑



스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작가 몰리에르(1622-1673)의 문학과 인생을 다채롭게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몰리에르의 희극을 기반으로 불어의 언어적 확장, 그리고 중세 소극의 범주에 머물

렀던 극예술이 몰리에르를 통해 근대 오페라의 영역으로 확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소개할 예정이다.

다음 인문학 강좌는 6월 15일 최혜영 교수(사학과)와 이강서 교수(철학과)의 '서양 고대 세계의 탐색, 나와 우리의 그리스학'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